

# 알바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유치부 아이들(위)

성경을 읽고 있는 초등부(옆)

##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Atëherë ai u ul, i thirri të Dymbëdhjetët dhe u tha atyre “Nëse dikush do që të jetë i pari, le të bëhet i fundit i të gjithëve dhe shërbëtori i të gjithëve. (Marku 9: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꼴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막 9:35)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섬기는 사람인지 섬김을 받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높은 마음에 절망을 느끼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낮아지며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높이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높

여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한 후원자를 통해서 배부된 어린이 성경을 받아, 고학년용 중심으로 모임 후에 성경을 직접 읽고 있습니다. 손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으며 읽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고 삶이 온전히 변화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일 맞은 크리스티나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저수지에서



성경공부 후 함께 식사

# ‘행복한 만남’

조짜이에서 매주 형제 자매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면, 어김없이 ‘일이 많아서 힘들었다’는 답이 나오고, ‘좋았다’는 답도 나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 하라, 집안 일 하라 바쁜 자매들입니다. 이들과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나눠 즐겁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기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즐거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 ‘용남’과 ‘섬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부활절을 기다리며...

>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커지는 한국교회와 알바니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4월 21~23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알바니아, 코소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학교를 GMP커넥션 팀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하시는 목회자들의 영적 충만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연락처와 후원

메일: [jcinseol@gmail.com](mailto:jcinseol@gmail.com)

우편물 주소: c/o AEP P.O.Box 119 (#11) Tirana, ALBANIA

핸드폰: +355-69-601-7318 (김재설), +355-69-601-7319(전미애)

인터넷 집전화: 070-7578-0940

후원계좌: 303-04-00002-083

(외환, 한국해외선교회)



## 감사 1

부모초청 성탄절 모임은 대부분 엄마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동네 카페를 빌려 함께 했던 시간은 아이들과 자매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사마리탄 퍼스가 알바니아 시골지역 교회에 후원한 푸짐한 선물로 더욱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탄 모임이후 아이들이 더 많아져 유치부와 초등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감사 2

조짜이 마을에 가장 가난한 집 딸 아리나(ARINA)로 이름붙여진 자매.

주님이 숨겨두신 보물.

매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자매.

2월부터 폐친에서 미용기술과정을 시작했어요.



## 뿌리뽑힌 죄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과 함께 새 생명을 선포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집 주인 린디아 자매의 아버지가 대추나무를 뿌리채 뽑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렌지 나무를 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물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안의 죄의 실체는 뿌리채 뽑혔고, 이제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숨쉬는 예수생명으로 살게 하소서!